

# 광주는 아파트 도시

## 2016 인구주택총조사

49만5천호 중 77.8% 차지

전국 평균보다 17.7% 높아

도시정비사업 등 공급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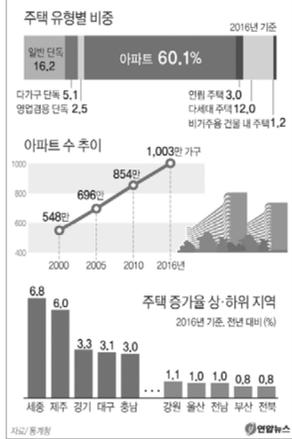
후세 부담·도시공동체 악영향

아파트가 통계청 조사 이래 처음으로 1000만호를 돌파한 가운데 광주시의 아파트 증가세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지나친 것으로 집계됐다. 10채 가운데 8채가 아파트다. 전남은 노후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지난 31일 발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 주택은 1669만2000호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다. 단독주택은 0.2% 감소한 396만8000호, 공동주택은 2.7% 증가한 1252만3000호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대부분은 아파트(1003만호)였다.

광주의 아파트 수는 모두 38만5000호로, 전체 49만5000호의 77.8%를 차지했

## 2016 인구주택총조사 - ② 주택 부문



17.2%에 불과했다.

이처럼 광주의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은 2000년대 이후 재개발, 재건축 등에 의해 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도심 외곽 등 도시 전체에 아파트 공급이 부분별하게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으로 6만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7만호 등이 예정돼 있어 광주가 아파트로 뒤덮일 전망이다.

높은 아파트 비중은 확실적인 도시 경관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재건축 등 미래 세대에게 높은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단독주택, 노후 아파트, 신규 아파트 등으로 주거지가 구분되면서 도시공동체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주택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 역시 수도권인 경기(12만1000호), 서울(3만8000호)이 1, 2위를 나타냈다. 주택 증가율에서는 세종(6.8%), 제주(6.0%) 순으로 높았다. 주택의 연면적으로 따지면 60㎡ 초과~100㎡ 이하의 주택이 3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파트의 주거용 평균 연면적은 75.0㎡로 나타났다. 했다. 20년~30년 미만인 주택도 482만4000호로 28.9%에 이르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다. 이는 최근 입주한 계획 신도시 세종(78.3%)보다 0.5% 낮은 수치로, 전국 평균(60.1%)보다 무려 17.7% 높은 것이다. 서울(58.0%), 부산(63.9%), 대구(69.9%), 인천(61.4%), 대전(72.4%) 등 다른 대도시는 50~70% 초반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광주의 단독주택 비중은 8만7000호로



광주의 아파트 수가 38만5000호에 달해 전체 주택 수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 17% 이상 높은 전형적인 '아파트 도시'다. 사진은 고층아파트 숲이 돼버린 광주 구도심 전경.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늙고 주택 노후 전담

65세 이상 21.3%...전년비 0.2% 늘고 인구 3500명 줄어

노령화지수 전국 1위...주택 10채 중 6채 20년 이상 '노후'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1.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늘었다.

노령화지수도 162.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세종(47.8)과는 무려 115포인트 차다. 노령화지수가 높은 만큼 노인부양비도 32.6으로 전국에서 최고다.

기초단체에서는 고흥군이 노령화지수 50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472.9)보다 3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신안군(472.7), 곡성군(396.5), 함평군(387.7)이 뒤를 이었다.

전남 전체 73만7000가구 중 34%인 24만6000가구에 고령자(65세 이상)가 거주하고 있으며, 고령자만 있는 가구도 15만5000가구로 21.3%에 달했다. 독거노인(고령자 1인) 가구도 9만6000가구(13.2%)나 됐다.

전남 인구는 2015년 179만9000명에서 지난해 3500명(0.2%)이 줄어 179만6000명이었다. 서울(-1%)에 이어 두번째로 인구감소가 심각했다. 지난해 전남에 6만4000명이 들어왔고 6만5000명이 나가 1000명이 유출됐다.

1인 가구는 강원·경북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1995년 16.3%였던 1인 가구 비율은 2005년 24.6%로 20%를 넘어섰고 2015년 30.4%, 지난해 31.2%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2000명 증가한 3만7000명으로 전남 인구의 2.6%를 차지했다. 외국인인 영암에 6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암 인구의 무려 9.8% 차지했다. 영암의 경우 10명중 1명가량이 외국인인 것이다.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인 다문화 대상자는 1만1502명으로 전국의

3.9%였다. 이 중 국적 취득자는 5729명, 미취득자는 6773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1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목포(1141명), 순천(1120명), 광양(847명), 영암(711명) 순이었다.

전남의 가구 수는 73만7000가구로 전년보다 6000가구가 늘었다. 가구의 거주 유형은 단독주택이 39만8000가구, 아파트 27만2000가구, 연립주택 1만2000가구, 다세대주택 8000가구,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1만3000가구 등이었다.

주택은 75만5000호로, 가구수보다 1만8000호가 넘쳐 주택보급률은 102.4%에 달했다.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40만2000호, 53.3%)과 아파트(31만6000호, 41.9%)가 95.2%를 차지했다.

주택 10채 중 6채(45만7000호, 60.5%)는 20년 이상 노후주택이었다. 30년 이상된 주택도 33.5%(25만3000호)나 됐다. 이는 전국에서 노후주택비율이 가장 높다. 빈집은 10만2000호로 10곳 중 1곳 이상(13.5%)이 비어있고, 경기(16만8000호)·경북(10만8000호)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빈집이 많다. /박정욱기자 jwpark@

# 늙고 홀로되는 한국

혼자 사는 1인가구가 한국에서 가장 흔한 가구로 자리 잡으면서 평균 가구원 수가 꾸준히 줄고 있다.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1인 가구는 70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컸고, 전체 가구주의 나이도 1년 전보다 0.5살 많아졌다.

'1인 가구' 70세 이상 최다 가구원수 2.51명...0.02명 ↓ 다문화가구 첫 30만 돌파

다문화가구의 비중도 2015년 30.4%, 지난해 31.2%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2000명 증가한 3만7000명으로 전남 인구의 2.6%를 차지했다. 외국인인 영암에 6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암 인구의 무려 9.8% 차지했다.

다문화가구는 꾸준히 증가해 처음으로 30만을 넘어섰다. <'나홀로' 가구가 대세>-70세 이상 이 비중 가장 높아=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

체 가운데 27.9%인 539만8000가구였다.

<다문화가구 31만6000~한부모 가구는 감소>=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는 557만3000가구, 영유아자녀가 있는 가구는 205만6000가구로 1년 전보다 각각 2.2%, 1.0% 줄었다. 저출산의 영향이다. 1·2자녀 가구의 69.6%는 아파트에 살았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거주 형태는 아파트 63.9%, 단독주택 22.0%였다. 영유아자녀가구의 71.1%는 아파트에 살았다. 한부모의 법적인 혼인상태가 미혼·이혼 혹은 사별인 상태에서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한부모가구는 작년 154만 가구였다. 1년 전보다 4.2% 감소했다. /연합뉴스

# 1659채

임대주택 전국 최다 보유자 광주 거주 개인사업자 18만2204명 평균 3.5채씩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집 부자 1위는 광주시 서구에 사는 40대로 1659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605채를 소유해 세 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50대도 광주시 남구에 거주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임대주택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18만2204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는 총 64만2377가구나다. 1인당 평균 3.5

가구를 보유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가장 많았다. 서울 임대주택수는 전체의 31%인 19만8547가구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15만8322가구(25%), 부산 8만1038가구(13%) 순이다. 서울과 경기, 부산 3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등록 임대주택의 68%를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3만5434가구), 서초구(3만691가구), 송파구(2만9611가구) 순이었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보다 여성 임대사업자가 더 많았다. 남성 8만4493명이 31만3562가

구, 여성 9만7711명이 33만474가구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개인은 광주 서구에 주소를 둔 A씨(43)로 1659채를 등록했다. 이어 700채를 가진 경남 창원시의 B씨(50), 605채를 보유한 광주 남구의 C씨(53)순이었다.

연령별 임대주택 사업자는 4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다. 최연소 임대주택 보유자는 경기 성남의 2세 영아이며, 서울 서초·송파 3세 영아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D씨는 11세임에도 16채를 보유하고,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E씨는 13세임에도 1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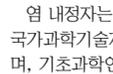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대식 KAIST 교수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황우석 사태'에 연루, 사퇴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임에 임대식(52·사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서울 출신인 임 본부장은 영일고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생화학·분자유전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연합훈(51)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에 백경희(61)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임 내정자는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기초과학연구원 원자제어지원원장 연구단 단장으로 재임했다. 그는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포항공대에서 물리학 석사학위를, 일본 도호쿠대에서 물리학

임 본부장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위원장과 KAIST 생명과학과 지정 석좌교수를 거쳐 히포(Hippo) 세포분열·분화창의연구단 단장으로 일해왔다.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임 내정자는 기초과학 분야의 새 세대를 대표하는 물리학자로,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백 내정자도 서울 출신으로, 숙명여고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에서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식물학회 및 한국식물물리학회 이사와 고려대 식물실험센터 연구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본 사 인 사 ▲유정영·전북취재본부 익산주재 부국장 (9월 1일자)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수강생 모집

##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 2017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5기)	광주교육대학교(16기)
개강일시	- 화요일 오전반: 2017. 9. 5. (화) 09:10 (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7. 9. 9. (토) 09:10 (특급반)	- 목요일 오전반: 2017. 9. 7. (목) 09:10 (중급반) - 금요일 오전반: 2017. 9. 8. (금) 09:10 (초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7. 9. 9. (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7. 8. 1(화)~9. 9.(토)	2017. 8. 1(화)~9. 9.(토)
수업기간	2017. 9. 5.(화)~2018.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7. 9. 7.(목)~2018.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현문관청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국립학교병과 후 교육감서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등급-사범/특기회 부여)	-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현문관청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국립학교병과 후 교육감서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등급-사범/특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 의: 062)520-4243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종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